

# 공급망 재편 가속화, 조여오는 위기



한용수의  
특필구

미-중 공급망 전쟁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무역에서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관세총국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12월 한 달 기준 대미 수출은 112억9000만달러, 대중 수출은 108억7000만달러로 역전됐다.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선 건 20년 6개월 만이다. 일본 역시 4년 만에 미국 수출이 최대치를 기록하며 대중 수출을 넘어섰다. 미국의 경우 수입 상대국 1위는 17년 만에 중국이 밀려나고 멕시코가 차지했다. 가전제품 등의 조달처는 중국에서 인도·베트남으로 이동 중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대중국 공급망 견제를 취하며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는 추세다.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는 미국은 지난달 반도체법 발효 후 자국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GF)에 15억달러 규모 보조금과 이를 넘어서는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통해 1만

500여 개의 건설·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125억달러의 잠재적 민간 투자 효과가 나올 것이라 전망이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승인이 가속화되며, 인텔 등에 대한 보조금 승인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EU는 역외보조금 규정(FSR) 시행 후 처음으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불가리아 열차 공공조달 사업 입찰에 참여한 중국 기업 중저층판이 EU 역내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 역외보조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번 직권조사는 EU 역외보조금 규정 발효 후 이행 과정에서 심층 조사로 이어진 첫 사례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 기업인 중저층판의 계약 낙찰 금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이 글로벌 무역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은 여전히 막강하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미국 견제를 피하기 위해 아세안·멕시코 등 다수 자원국과 신흥국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은 11억달러를 기록해 2021년 이후 지속 성장 중이다. 중국 상하이 소재 테슬라 부품 공급망이 미국 텍사스주에 이전한 멕시코 몬테레이 지역으로 대거 이전하며, 미

국의 규제를 회피하고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 멕시코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에선 대 중국 제재로 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반도체 공정 중 실리콘 세척·절단 등에 사용되는 일본 반도체 장비 수입이 특히 증가했고, 대 중국 수출이 도쿄 일렉트론 등 올해 일본 주요 기업 매출의 최대 50%를 차지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EU 등 경쟁국들이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거나 적극 대응하며 자국 이익을 도모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주요국들은 이미 자국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한국은 오는 6월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안보폭목 관련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을 시작한 수준이다.

공급망 다변화, 기술혁신을 통한 자국내 생산 등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제조 등 우리만의 강점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중국, 대 미국 대응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종=hys@metroseoul.co.kr

## 누구를 위한 공천인가



기지수첩  
박정익  
(정치경제부)

여야의 공천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 서면서 본격적인 제22대 총선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다.

공천작업은 쉽지 않다. 아무리 공정하게 공천을 하더라도 당내 잡음이나 불만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각 정당들은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데 힘을 쏟는다.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공천에서 강조한 것은 '시스템 공천'이다. 그러나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온데간데없어 보인다.

청년 후보자에 대한 경선 보장이라든가, 경선에 대한 방식, 전략지역 지정, 지

역구 변경 등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공천이다.

그나마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잡음 없이 공천작업이 이뤄지는 모양새인 반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과정 중 벌써 10여명의 의원들이 탈당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천 갈등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리얼미터의 2월 4주차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39.5%)이 국민의힘(43.5%)에 역전당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은 40%대의 정당 지지율을 유지했고, 탄핵의 반사이익으로 문재인 정권 탄생에 이어 지난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어 국회 내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0% 안팎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천 파동으로

축발된 당내 갈등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의 현 상황은 2012년 19대 총선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하다. 당시 이명박 정권 말기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낙관했고, 정권 심판론에만 안주한 나머지 계파 싸움과 공천 갈등이 극에 달했다.

반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띄워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하며 김종인 현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영입해 경제 민주화를 내세운 결과 152석이라는 과반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민심은 바람과도 같다. 수권정당의 능력을 보이는 정당이, 진정성 있게 민생을 위한 정당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공천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천이 마무리 되길 바란다.

/pathfinder@

오늘의 운세 3월 5일 (음 1월 25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보기 싫던 사람도 항상 보게 되니, 48년생 오후부터 상승 운이니 여행 일정 결정은 오후로 미뤄라. 60년생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다. 72년생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에 대해 머무르지 말 것. 84년생 부정함 타협에 말리지 마라.
- 소** 37년생 먼 곳에서 손님이 즐거운 소식을 들고 온다. 49년생 떠나기도 머물기도 어려운 하루가 되겠다. 61년생 조연도 사람을 봐 가며 따라야 하는 법. 73년생 작은 일로 언쟁이 생겨 크게 될 수 있다. 85년생 호랑이띠와 거래는 미뤄진다.
- 호랑이** 38년생 몸이 마음을 따라 주지 못하는 하루. 50년생 지고도 이기는 것이 있으니 때로는 저 누는 것도 좋다. 62년생 조금이나마 화를 부른다. 74년생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 좋은 소식이 온다. 86년생 어제의 결실이 오늘 현찰로 들어온다.
- 토끼** 39년생 횡재수가 있으니 집 안 청소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51년생 서명을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63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헛짓. 75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 부터이니 시작을. 87년생 결혼식을 유령에 따를 필요까지 있을지.
- 염** 40년생 남모르게 베푼 선행이 나에게 돌아온다. 52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이치. 64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여겨라. 76년생 욕심이 과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 88년생 공연한 것에 화내지 않도록.
- 뱀** 41년생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희망을 품게 된다. 53년생 작은 먼지가 눈물을 내게 하니 주위를 살피라. 65년생 지나친 운동이 몸을 더 해친다. 77년생 만인이 부러워하니 내게는 별로 쓸모가 없다. 89년생 중점이 사발점이 될 수도 있음.
- 말** 42년생 운행 시에 보복 운전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54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굴러들어오는 날. 66년생 시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를 보내라. 78년생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하다 보면 결과가 좋다. 90년생 영입목표를 이룬다.
- 양** 43년생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행한다. 55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작은 지출을 하는 것도 꼼꼼히. 67년생 수고로움이 오늘의 결과를 좋게 한다. 79년생 무대위가 가면 그늘을 찾지 않으니 마음을 비워라. 91년생 잃어버린 물건을 오후에 찾는다.
- 원숭이** 44년생 장거리 여행을 나설 일이 생긴다. 56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68년생 흐르는 대로 내버려두면 절로 굴러간다. 80년생 꽃피고 새가 우니 움직일 때이다. 92년생 건디기 어려운 시련도 결국은 지나간다.
- 닭** 45년생 투자를 위해 돈 빌리지 않도록. 57년생 외출을 삼가고 건강에 유의. 69년생 불만이 있어도 누구를 탓하겠나. 81년생 미뤄진 일에서 기적처럼 이익이 발생함. 93년생 인내하는 행동이 나를 높여주니 투덜대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해라.
- 개** 46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친구와의 대화에 주의해야 한다. 58년생 과한 운동을 피하고 심신의 안정을 취해야 하는 날. 70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이 들어오니 기쁘다. 82년생 희비도 종이 한 장 차이. 94년생 꿈이 큰 만큼 실력을 키워나가야.
- 돼지** 47년생 개미구멍 하나로 복이 무너질 수 있다. 59년생 운세가 트이니 능력보다 많은 일을 해내는 날. 71년생 직장에서 의견 손해가 있을 수 있다. 83년생 승전에 고생한 보람을 느끼고 흐뭇한 하루이다. 95년생 비난은 서로를 지치게 할 뿐이다.



## 김상회의四季 공짜 점심은 없다

주식을 매수하고 며칠 동안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가가 확 오른다. 이유 없이 주가가 조금씩 오르는 일은 그리 이상할 게 없다.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계속해서 크게 오르면 조심해야 한다. 이른바 작전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초보 투자자들이 위험한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 작전주를 매수하는 것이다. 작전주는 어떤 세력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식을 말한다. 작전주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주가가 오르기도 한다. 위험도 크다.

그렇지만 투자자는 불법도 위험도 개의치 않는다. 작전주를 매수해서 수익이 생길지 아닐지는 분명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세상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들은 작전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잘 생각해야 한다. 계속 주가가 오르면 잠시 매수했다가 빠지면 된다고 생각한다. 위험한 생각이다. 작전 세력들은 주가가 낮을 때 대량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가짜 정보나 호재를 만들어 시장에 흘린다. 더불어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빠르게 끌어 올린다. 초보 투자자가 작전주 정보를 듣게 되는 게 이런 때쯤이다. 초보들은 얻어들은 정보에 흥분하고 돈을 투자하지만 이런 때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내 귀에까지 정보가 들어왔다는 건 이미 작전이 끝날 때라는 의미와 같다. 그런데도 혹해서 투자에 나선다면 결과는 엄청난 재산 손실이다. 작전이 끝난 주식은 갑자기 급락하는 게 일반적이다. 팔아버리려고 해도 팔 수가 없다. 아무도 매수하지 않는데 어떻게 팔겠는가. 내 재산이 눈앞에서 허공으로 날아가는 걸 고통 속에 지켜봐야 한다. 인생살이 투자에서 쉽게 얻어지는 건 없다. 필자는 한때 금융인이었다. 그때 이런 말이 있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8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8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특별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6		4	7
	8	5		2	9
1					
	4		7		6 3
		1	8		
7 6		9			8
					9
	2	9	6		3
9	8		4		5

		1		4		7	
	4						3
6		5		9			4
		9	4	7	2		
5							9
		6	9	5	8		
1			3	2			6
	6						1
		2		7		5	

9	1	9	7	2	8	8	2	6
8	8	2	9	1	6	9	2	7
6	7	2	2	9	8	9	1	2
2	8	9	8	6	7	1	9	2
7	2	6	8	9	1	2	8	9
8	9	1	9	2	2	6	7	8
9	2	8	6	8	2	7	9	1
1	6	8	2	7	9	2	8	9
2	9	7	1	8	9	8	6	2

8	8	9	9	2	1	2	6	7
2	1	6	7	9	8	8	9	2
9	2	7	2	6	8	8	9	1
2	7	8	9	8	6	9	1	2
6	9	8	8	1	2	7	2	9
1	9	2	2	9	7	6	8	8
7	2	1	6	8	9	2	8	9
8	8	9	1	2	2	9	7	6
9	6	2	8	7	9	1	2	8